

농림축산식품부

2016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 개최
축산업 인식제고...소비촉진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13일 충남 금산군 이담산양목장*에서 '2016 친환경 축산농장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담산양목장(대표 정태성)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15.11.2.), 무항생제축산물 인증('16.4.22.~'17.4.21.), 유산양 400마리 사육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회장 이교훈)가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축산 현장에서 엄격한 위생관리를 통해 안전하게 생산되는 친환경축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보고 믿음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아울러 산지 초지를 활용한 방목 축산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방식에 가공·체험 및 관광을 연계한 6차 산업형의 신개념 축산모델인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14~'16년까지 시범조성사업 시행, 전국에 26개의 시범농장 선정·지원 중

음악회는 먼저 국악실내악단인 '풍류락'이 피리, 태평

소, 해금, 대금, 소금, 가야금, 아쟁으로 신뎃놀이, 아름다운 나라, 판놀음을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이어 1988년 창단한 클래식 연주단체 '사)서울튜티앙상블'이 색소폰 4중주로 클래식, 가곡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창작국악그룹인 'The툰'이 동서양의 어울림을 연주하면서 봄의 정취에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 어우러졌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행사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목장의 경관과 친환경축산물의 생산과정을 직접 보고 설명 듣는 기회를 가졌다. 또 전국에서 출품한 30여 점의 축산농장 사진전을 둘러보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시식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자연을 지키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산지생태축산과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축산업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기금질병 대응기술 향상을 위한
민·관·학 합동 세미나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5월 12일(목) 김천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에서 민·관·학 합동 연구모임인 '한국가금질병연구회'와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가금산업에서의 현안 질병 대응 기술'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농무부 스웨인(David Swayne) 박사와 이동훈 박사의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백신연구와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결과, 중국 농업과학원 리(Li Yanbing) 박사의 중국 내 HPAI 역학과 방제대책, 임상수의사인 최동명 원장의 계두와 전염성후두기관염의 감별진단, 농림축산검역본부 정옥미 박사의 전염성코라이자 야외 발생사례 등의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국내 가금산업에서의 현안질병 대응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방역기술 정보교환과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참가자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계기가 되어 정부 3.0 정책의 바람직한 사례로 평가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현안질병에 대한 현장 대응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민·관·학이 참여하는 현안 질병 학술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현장 방역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금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질병 진단능력 정도관리 실시
지자체·민간기관 진단능력 고양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 및 민간 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정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도관리는 시·도 지자체 방역기관 45개소와 민간 진단기관 10개소 등 총 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질병진단으로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그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 현장에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밝혀내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도관리 항목으로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원인체와 항체검사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병리조직 검사를 추가하여 총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올해 검사 대상항목은 브루셀라 시험관응집반응, 일본뇌염 혈구응집억제반응, 가금티푸스 감별 유전자검사, 뉴캐슬병 유전자검사, 병리조직검사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정도관리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최우수기관은 공개하고, 검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도관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냉장축산물 냉동전환업소 위생점검
117곳 특별점검...3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냉장을 냉동으로 전환시키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업체(4개소), 식육포장처리업체(85개소), 식품등수입판

매업체(16개소), 축산물보관업체(12개소) 등 총 117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3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업체의 냉동전환을 위한 사전신고와 냉동전환 후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전신고 없이 냉동전환 실시(1개소) ▲유통기한 지난 포장육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을 신고한 것보다 초과하여 표시(1개소) 등이다.

참고로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한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이나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가금과를 가금연구소로 직제 개편하고 신제품 개발과 친환경 첨단사양기술 등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 10일 축산자원개발부(충남 천안) 2동에서 가금연구단지 이전 추진경과 보고와 함께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오성종 국립축산과학원장과 박수봉 축산자원개발부장, 문홍길 초대 가금연구소장 등 관련 부서장들과 대한양계협회, 한국도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내외부 관계자 30명이 참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4년 가금과(충남 천안)의 강원도 평창 이전이 결정된 이후, 2015년 1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연구동과 축사 부지선정,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이전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현재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가금연구소는 평창군 대관령면 황계3리에 종합연구동과 닭·오리 신제품 개발, 친환경 사양기법 개발 등을 수행할 가금연구 현장시설을 완공하고 올해 말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 연구시설로 설계한 가금연구소는 그 동안 침해해 있던 국산 닭·오리 종자개발과 가금산물 품질 고급화 연구 등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현장중심 핵심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성종 원장은 “가금연구소 신설을 계기로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위축돼 있는 조직을 보강하고 미래대응 전략을 수립해 가금산업을 견인하는 연구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신설, 현판식 개최
신제품 개발 · 첨단사양기술 업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정부3.0 맞춤형 지원...100% 달성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 이하 축산물인증원)이 올해 12월 1일부로 적용되는 알 가공품(계란) HACCP 의무화 1단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 알 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알 가공품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16년 12월 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17년 12월 1일부터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축산물인증원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알가공업체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HACCP 미인증 업체의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했다.

*알 가공업체는 '16년 1월 기준 132개소로 49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83개는 미인증업체다. 이중 40개소가 2016년 12월, 43개소가 2017년 12월 1일부로 해설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해설했을 의무화 시행에 따라 앞으로 단계별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집중적인 HACCP 운용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축산물인증원은 'HACCP 의무대상업체 현장 기술지도 계획'을 마련하고, 본·지원별로 기술지원 전담심사관을 2명씩 임명하였으며, 업체별 현장기술지도 등 기

술지원(44회)과 주기적인 전화 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조치 등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HACCP 적용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영인과정' 특별교육을 개설하여 의무적용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3월부터 지역별 '알가공업 해설했 설명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앞으로도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알가공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HACCP 적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또 업체의 위생관리 운용수준 제고를 위해 '축산물 HACCP 의무화 업종(알가공업) 대상 미생물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4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 17,000천원(1개 업체당 500천원 상당)을 들여 미생물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미생물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알가공업체는 축산물인증원 연구개발센터(043-443-6155)로 검사를 의뢰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심사1처장은 "축산물인증원은 알가공업 HACCP 의무화 조기인증 유도를 위해 정부3.0 기반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다방면에 걸쳐 강화하고 있다"며 "의무화업종 대상 업체가 HACCP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인증심사 수수료 무료, 현장 기술지원,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016년 방역사 보수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중)는 지난 5월 10~13일 보령시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방역사 300여명

을 대상으로 구제역·AI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재발방지를 위한 '2016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본부장은 입교식에서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청정화를 위한 예찰, 농가 홍보·교육 등 방역사의 역할 강화 및 효율적인 방역활동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최 일선의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길 당부했다.

금번 교육은 구제역·AI 재발방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관리과에서 “구제역·AI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방역조치”에 대한 교육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과의 “구제역·AI 가족질병 발생 사례 및 선제적 대응”, 금년 구제역 발생에 대한 충남도청 축산과의 ‘2016년 충남 구제역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농협중앙회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
실천·선포식 개최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선진축산업 구현’을 위하여 ‘클린업 축산 환경 개선의 날’을 지정·운영 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5월 11일(수)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하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 9개 지역본부와 함께 축산

환경 개선에 나섰다.

농촌의 도시화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환경개선 요구가 증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지난 2월 ‘축산업 선진화’ 정책 구상을 통해 축산냄새 발생 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무허가 축사 및 축산환경문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월 10일 10시, 10만 양축농가의 일제 축사 청소 및 농장 경관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중앙본부 뿐만 아니라 전국 9개 지역본부 축산사업단과 축협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축산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국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협 축산경제는 농가 스스로 축산냄새 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가실천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축협 방제단 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냄새 취약지역에 대한 ‘클린업 축산 119 출동서비스’도 제공한다. 냄새민원 발생지역에 긴급 출동하여 저감제를 살포함으로써 냄새민원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축산 환경개선 운동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냄새 없는 현장을 구현하고, 농협 계통사업장을 Clean 사업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대학생 이력정보(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이력제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이력정보를 개방하여

해당 정보를 분석·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전국 대학생 이력정보(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참가는 대학생(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데이터 분석과 제도 및 콘텐츠 개선 아이디어 부문으로 진행하며 축평원에서 개방한 이력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방안을 제시하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은 6월 30일까지, 제안서 접수는 8월 5일까지이며 제안내용에 대한 1차 서류평가를 거쳐 본선 참가자 6팀을 8월 17일 선정하게 된다.

축평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참가팀의 제안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팀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장상과 상금(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동상 150만원, 기타 5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경진대회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모집요강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대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 생성과 콘텐츠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대회가 앞으로 보다 질 좋은 이력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스페인 바르셀로나 식품박람회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한국농수산물유통

공사(aT, 사장 김재수)는 유럽·중남미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하여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2016 스페인 바르셀로나 식품박람회(Alimentaria 2016)'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40년)째인 이번 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유럽최대 식품전문박람회 중 하나로서 금년도 78개국, 4,000개 업체가 참가하고 157개국14만명의 바이어와 참관객이 내방하는 등 한국식품의유럽 및 중남미 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aT는 '전통'을 테마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김치볶음밥 등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를 활용한 시연·시식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였고, 일월오봉도와 조선시대 궁중 옷을 활용한 포토존, 전통가야금 연주 및 각종 전통장류를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장류 홍보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유럽·중남미 바이어와 내방객에게 우리 농수산물과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렸다.

다양한 프로모션 등에 힘입어 신선농산물(버섯), 음료제품(알로에베라), 면류(라면), 숙취음료, 즉석밥 등 한국관 참가업체들의 상담성과는 박람회 기간 중 130건 20,219천불로 집계되었다.

aT 유총식 식품수출이사는 "스페인인 전세계 4억의 인구가 사용하는 스페인어 종주국이자 EU Big4의 경제대국으로서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국가이다. Mercadona, El Árbol, El Día 등 스페인 대형 유통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며 문화·언어적으로도 동질적인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장이다"라며, "아직 우리에게 불우오션인이 시장에서 한국농식품 판촉행사·박람회 참가 등 여러 해외 마케팅 툴을 통한 홍보로 우리농수산식품의 이미지 및 가치를 높인 뒤 현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